

장애의재해석 제6권 제1호

2025 Vol. 6, No. 1, 025 - 051

## 호주 라 트로브 교육모형을 활용한 지원의사결정 교육의 효과와 향후 과제

이동석\*, 도여옥\*\*, 김강원\*\*\*

본 연구는 의사결정 지원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모형이 없는 상황에서 호주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개발된 라 트로브 교육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직접 교육해 본 후 이 교육모형이 우리 현실에서 효과적인지, 또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6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교육을 하고 초점집단인터뷰, 서면 인터뷰, 성찰기록노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식전환을 이룬 지원의사결정 교육, 효과적인 교육 방법, 실천 적용에의 한계, 성공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조건과 같은 4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결국 라 트로브 교육모형을 활용한 지원의사결정 교육은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통해 후견인들은 피후견인을 독립적 의사결정 주체로 인식하는 전환을 경험했으며, 소규모 그룹 교육과 사례 활용이 참여도와 이해도를 높였다고 확인되었으며,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체계적인 지원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부족함도 있었다.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욕구 파악 방법의 한계가 존재했고, 실습 중심 교육과 다양한 사례 학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 이외에도 지원자의 역량 강화, 피후견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 그리고 사회적 지원 확대 등과 같은 조건이 성공적인 지원의사결정 실천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적인 피후견인들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와 관련인들의 역할이 필요하고, 후견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용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한국형 지원의사결정 모델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지원의사결정, 호주 라 트로브 교육모형, 교육 효과, 성년후견제도, 권익옹호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대구재활센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lilydo0357@gmail.com

\*\*\* 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

## I. 서론

전 세계 인구 중 적어도 6억 5천만 명, 즉 세계 인구의 10%가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갖고 있다(Disabled World, 2025). 특히 미국과 호주의 유병률 데이터에 따르면 인구 중 최소 5%가 지적장애 또는 후천성 뇌 손상(ABI)으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 인지장애를 갖고 있으므로(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3; US Census Bureau, 2014), 의사결정에 상당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적 기능의 손상이 있는 발달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0.5% 정도이고, 정신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0.2% 정도이다(보건복지부, 2025a). 또 치매 인구는 10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 중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5b).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인지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상당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2.7%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들, 또는 상당히 부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을 통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도 자체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 제도는 폐지되고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도 피성년후견인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대체의사결정이고, 권리의 보유 권한(Holder of rights)은 인정하되, 행위권(Agency of rights)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UN CRPD, 2014a). 금치산 제도에서는 재산권 자체를 박탈했기 때문에 행위권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성년후견제도에서는 재산권은 인정하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행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피성년후견인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지만 본인이 자신의 통장을 갖고 은행에서 입금 및 출금을 직접 할 수 없고 반드시 후견인을 동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 정신장애, 또는 치매를 가진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규정하는 ‘법 앞의 평등’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제철웅, 2017; 김미옥·김고은, 2023).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장애인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타인과 동등하게 법적 역량(legal capacity)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할 뿐만 아니라, 법적 역량을 행사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지원을 장애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개발할 책임이 서명국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UN CRPD, 2014a). 이 조항에 의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및 2023년에 각각 채택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대한민국 심의에 따른 최종 권고’를 통하여 현행 성년후견제도의 대체의사결정을 지원의사결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UN CRPD, 2014b, 2023). 지원의사결정은 ‘장애인이 타인에게 권리를 이양

하지 않고 타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법적 역량을 완전히 향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Inclusion EU, 2008),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된 사람이 가능한 한 언제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을 말한다(Davidson et al., 2015).

하지만 지원의사결정이 강조하는 장애인의 자기옹호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일반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실생활에서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와 실천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지원의사결정 제도를 다른 나라에 비해 빨리 도입했던 캐나다와 스웨덴에서도 제도 확립 이후 초기에 이를 적용한 연구들이 있으나 지원의사결정 제도의 운영 및 결과에 관한 증거를 확실하게 제공하지 못했다(Gordon, 2000; Gooding, 2012; Douglas & Bigby, 2020). 더구나 우리나라는 아직 지원의사결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또 지원의사결정을 위한 실천과 관련된 연구도 미미한 실정이다. UN 장애인 권리협약위원회 권고 이후 대체의사결정보다는 지원의사결정으로 변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수준이다(박인환, 2014; 제철웅, 2014; 박인환, 2015; 이동석, 2017; 김미옥·김고은·박지혜, 2021). 지원의사결정 실천과 관련해서는 지원의사결정과 유사한 실천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관한 분석(김미옥·박지혜·정민아, 2020)과 좋은 실천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김미옥·김고은·정은혜, 2021; 김미옥·김고은, 2023; 이동석 외, 2023)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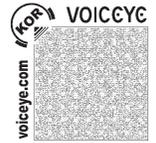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소통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원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을 받은 지원자들이 실천을 해 보고 실천을 점검하여 더 나은 실천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지원의사결정의 실제적인 현장 실천에서 요구되는 교육 과정과 지원의사결정 도구의 개발은 미미한 상황이다. 제도에 관한 교육, 개념에 관한 교육은 진행되었지만 이것만으로 실천을 담보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실천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이를 위한 교육 내용이 개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자료를 참조하여 교육할 수밖에 없다. 교육 이후 우리 실정에 맞도록 다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해외에서 개발된 교육 내용도 대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임의적으로 개발된 교육 내용이 많다. 일례로 호주에서도 2010년 이후 지원자들에게 의사결정 지원방법을 교육하고 교육 내용을 검증하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다. Bigby et al.(2017)은 문헌검토 방법을 사용하여 호주에서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완료된 6개의 프로젝트를 검토했다. 분석 결과 각 프로젝트는 의사결정 지원 제공 모델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보여주었지만, 각 평가과정의 엄격성이 부족하여 교육 효과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특히

개발된 교육 과정은 경험적 증거보다는 주로 전문가 의견과 실무진의 지혜에 기반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의사결정과 관련된 교육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호주의 라 트로브(La Trobe) 교육모형은 의사결정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에 참여하기 위한 증거 기반 가이드를 제공하는 최초의 교육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Douglas & Bigby, 2020). 이 교육모형은 개입방법의 절차를 다룬 Craig et al.(2007)이 설명한 4가지 단계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졌다. 즉 문헌 및 지원 경험을 검토하여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이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범 운영을 하고,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최종 교육 내용을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라 트로브 교육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직접 교육해 본 후 이 교육모형이 우리 현실에서 효과적인지, 또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지원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원자를 교육하여 효과성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현재 입증된 실천 모형이 개발되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원의사결정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공후견인에게 라 트로브 교육 내용을 교육한 후 효과성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공공후견제도는 성년후견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성년후견 중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고, 특정후견은 지원의사결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대한민국정부, 2019). 이 연구는 대체의사결정에서 지원의사결정으로의 실질적 전환을 위한 후견인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지원의사결정의 경험적 증거를 축적하며, 지원의사결정의 성공적인 현장 적용 및 실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호주 라 트로브 교육모형을 활용한 지원의사결정 교육은 우리나라에도 효과가 있는가? 또 우리나라에서 이 교육모형을 확산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이다.



## II.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호주 라 트로브 교육모형<sup>1)</sup>

라 트로브 지원의사결정 실천을 위한 교육모형은 호주 라 트로브 대학교의 ‘장애와 함께 살아가기’ 연구센터(Living with Disability Research Center)가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했다. 이 교육모형은 기본적 인권으로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의 지원자, 사례관리자, 코디네이터 등을 위해 개발되었다(Living with Disability Research Center, 2019).

### 1. 교육 개요

교육모형은 7개의 단계와 이를 설명하는 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모듈에는 가상의 사례로 만든 영상 교육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활동지,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된 워크북을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교육모형은 의사결정 지원의 중심이 되는 핵심원칙, 그리고 의사결정 지원의 7가지 단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의사결정 지원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결정 지원의 원칙은 헌신, 조화, 성찰과 점검이고, 지원의 단계는 그 사람에 대해 알기, 결정을 식별하고 묘사하기, 결정을 위해 그 사람의 의지와 선호를 이해하기, 결정을 구체화하고 제약 조건을 고려하기,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고려하기, 결정과 관련 결정에 도달하기, 결정을 이행하고 필요하다면 옹호자를 찾기와 같이 7단계로 되어있다.

〈표 1〉 의사결정 지원의 원칙과 단계

의사결정 지원의 원칙	의사결정 지원의 단계
헌신(Commitment) 조화(Orchestration) 성찰과 점검(Reflection & Review)	Step 1. 그 사람에 대해 알기 Step 2. 결정을 식별하고 묘사하기 Step 3. 결정을 위해 그 사람의 의지와 선호를 이해하기 Step 4. 결정을 구체화 하고 제약 조건을 고려하기 Step 5.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고려하기 Step 6. 결정과 관련결정에 도달하기 Step 7. 결정을 이행하고 필요하다면 옹호자를 찾기

1) 라 트로브 교육모형은 홈페이지(<https://www.supportfordecisionmakingresource.com.au>)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 2. 교육 내용<sup>2)</sup>

### 1) Module 1. 지원의사결정의 맥락

지원의사결정의 맥락에서는 자기결정권, 호주의 상황, 지원자에 대한 기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중 자기결정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자기결정권

-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도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삶에 대한 선택과 통제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 의사결정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더 이상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 더 좋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 1) 지원 및 보호의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유지하기
  - 2) 비공식적인 지원을 인정하기
  - 3) 당사자의 '의지'와 '선호'를 의사결정의 중심에 두기. 제한은 최소화하고 자율성 강화하기
  - 4) 권리기반 지원의 원칙에 대해 더 나은 지침을 제공하고 역량강화, 지원자의 책임성 제고를 통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 5) 의사결정 지원의 품질관리 및 이익제기를 위한 기준 제공하기
  - 6) 비공식적인 지원이 부족하거나 공식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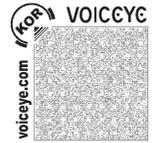
### 2) Module 2. 라 트로브 지원의사결정 교육모형 소개

라 트로브 지원의사결정교육은 효과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토대가 되고, 지원자가 따를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단계, 원칙 및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리며, 결정과 의사결정의 이해, 라 트로브 지원의사결정 교육모형을 소개하고 있다.

또 교육 참여자를 위한 질문과 같은 활동도 소개하고 있다. 관련 질문에는 '의사결정을 할 때 누가 당신을 돕나요?, 중요한 결정(예: 이직)을 내릴 때 누구의 도움을 받나요?, 그 사람의 주요 특성은 무엇이고 그 사람을 찾는 이유는 뭔가요?, 결정을 내릴 때 그런 사람 들로부터 어떤 종류의 지원을 기대하나요?'와 같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 연습을 통해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본다.

---

2) 모든 내용을 소개할 수 없어 주요 내용만 소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2024년에 펴낸 보고서(이동석 외, 2024)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3〉 라 트로브 지원의사결정 교육모형

- 교육모형 개발이유
  - ✓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 중요
  - ✓ 의사결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자신의 선호와 가치를 우선시 할 수 있음
  - ✓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도 의사결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 자아정체감 향상, 삶의 질 향상, 심리적 웰빙
- 교육모형은 어떻게 개발되었나?
  - ✓ 증거기반: 최상의 증거를 찾아 개발되었음
  - ✓ 광범위한 문헌연구, 인터뷰, 관찰 및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개발되었음
  - ✓ 모형의 특징: 증거기반, 진정성, 실용성
- 교육모형의 적용: 역동적
  - ✓ 교육모형의 사용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본인이 맡은 지원 역할의 유형에 따라 달라짐
  - ✓ 교육모형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으며, 각 단계 사이를 앞뒤로 이동하며 적용할 수 있음. 예컨대, 의사결정 지원 단계에서 3단계(의자와 선호를 이해하기)에 도달했을 때, 당사자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다시 1단계(그 사람에 대해 알기)로 돌아가 필요한 정보를 보완한 뒤 다시 3단계로 돌아와 계속 진행할 수 있음
  - ✓ 상황에 따라 어떤 전략을 더 자주 사용하거나, 특정 시점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3) Module 3. 지원의사결정의 단계들(Steps)

모듈 3에서는 지원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각 단계들은 당사자와 지원자 모두에게 포함(적용) 되는 것이다. 지원을 제공할 때 당사자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고, 결정은 실행에 옮겨지기 전까지는 진정한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단계에서 의사결정 지원자의 역할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자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1단계(개인에 대해 알기)부터 7단계(결정을 이행하고 필요하다면 옹호자를 찾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관련된 활동도 실습을 한다. 1단계는 ‘개인에 대해 알기’ 단계로, 개인이 스스로의 자기정체성(self-identity) 또는 자아(self-concept)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등 개인의 모든 측면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조쉬의 뉴캐슬 여행’이라는 영상을 본 후 토론하는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데, 조쉬가 여행에 들떠 있었지만 자동차로 출발하기 직전에 마음을 바꿔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한다. 그때 지원자는 조쉬의 결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서 집으로 가는 대신에 조쉬의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조쉬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조쉬는 열차 여행을 꿈꿨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조쉬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고, 조쉬와 다시 여행에 관해 논의하게 된다. 이 영상을 통해 조쉬의 지원자는 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2단계는 결정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단계이다. 결정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것은 핵심 문제

에 주의를 집중하고, 절차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안내하고, 긴장관계를 파악하고, 이 결정이 그 사람의 다른 삶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결정은 범위, 개입되는 사람, 자원과 제한의 영향, 기간, 결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되어야 한다. 즉 결정이 그 사람의 삶과 그로부터 이어질 수 있는 다른 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결정의 기준을 정하거나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결정에 관련된 사람, 결정을 제약하거나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시간, 한 가지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단계는 결정을 위해 그 사람의 의지와 선호를 이해하는 단계이다. 3단계에서는 당사자와 지원자가 결정에 대해 가능한 한 폭넓게 생각하고,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며, 다양한 옵션의 결과를 검토한다. 사람의 선호는 수시로 변하게 마련이다. 이에 따라 선호를 표현하는 방식과 선호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는 시간과 창의성, 끈기가 필요하다.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을 개발해야 하고, 한 가지 방법이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이 교육에서는 선호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 선호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대처하는 방법 등도 소개하고 있다. 물론 다양한 활동 사례를 통해 토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4단계는 결정을 구체화하고 제약 조건을 고려하는 단계이다. 결정을 제한하거나 사용가능한 옵션을 좁힐 수 있는 사항은 그 결정과 상황(맥락)에 따라 달라지지만, 제약 조건에는 시간, 자원,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지원자의 태도, 물리적 공간과 건축디자인, 정책과 절차, 부정적인 위험 요소 등이 있다.

5단계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고려하는 단계이다.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지원자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의 선호를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는 당사자가 선호하는 결정이 당사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지원자는 결정을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더 공식적인 논의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당사자의 선호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결정권을 훼손하는 것일 수 있다. 갈등을 표면으로 드러내고 이름을 지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다. 상급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조직에 확립된 절차를 이용하거나, 외부 자문을 구하거나, 후견인 선임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당사자가 원하는 결정이 본인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되거나 지원자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6단계는 결정과 관련 결정에 도달하는 단계이다. 관련결정을 식별하고 정의하여 주요결정에 도달하는 것이다. 결정의 작은 부분은 주요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주요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관련 결정을 최대한 많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이사를 가고 싶어 한다고 하고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결정으로 어떤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어떤 유형의 집(원룸, 단독주택, 아파트 등)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혼자 살고 싶어하는지?, 정원을 갖고 싶어 하는지?, 대중교통, 식당, 가게, 가족, 친구 등과 가까워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지? 등이 있다.

7단계는 결정을 이행하고 필요하다면 옹호자를 찾는 단계이다. 결정을 했다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행이 중요하다. 즉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지원자가 실행을 지원할 수도 있고, 결정을 이행하는 단계가 지원자의 역할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결정 이행을 지원할 옹호자를 찾아 조율해야 한다. 옹호자에는 사례 관리자, 옹호 단체의 유급 옹호자, 서비스 제공자, 당사자의 지원 네트워크에 속한 다른 사람 등이 포함된다.

#### 4) Module 4. 의사결정 지원의 원칙(Principles)

지원의 원칙은 헌신, 조화, 성찰 및 점검이다. 지원자는 당사자에게 헌신해야 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 의사결정은 당사자, 주 지원자, 옹호자 등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지원자는 지원을 이끌고 조율해야 한다. 주 지원자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당사자의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다른 지원자들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또 지원자는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자신이 제공한 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점검해야 한다. 지원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선호에 따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대한 소개와 함께 활동 실습이 제공된다.

#### 5) Module 5. 실천을 위한 전략

실천을 위한 전략은 의사결정 지원 과정의 모든 단계와 연관되어 있다. 실천을 위한 전략은 모든 단계에서 지원자가 어떠한 하능가를 강조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에 주의를 기울이기, 결과 및 현실성에 대한 교육, 모든 옵션이 고려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참여하기, 기회를 만들어내기, 결정을 작게 쪼개기, 위험 감수를 허용하기가 포함된다. 이 모듈에서는 각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활동 실습을 통해 이를 이해하고 익히도록 하고 있다.

#### 6) Module 6.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기(Bring it all together)

이 모듈에서는 시나리오를 통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한데 모아 요약한다. 원칙과 전략은 모든 단계와 얽혀 있고, 의사 결정은 당사자와 당사자를 지원하는 사람들 간에 공유되어야 하고, 새롭고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이 모듈에서도 케이스 시나리오 등을 통해 실습과 토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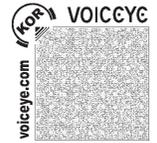
### Ⅲ. 연구방법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라 트로브 교육모형을 교육 받고 실제 현장에서 피후견인에게 의사결정 지원 실천을 한 후, 이 교육모형이 우리 현실에서 효과적인지 또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정신장애인의 후견인으로서 활동하는 공공후견인이다. 참여자 표집 방법으로는 세평적 사례선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특정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연구 주제에 적합한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Miller & Carpenter, 2009). 참여자 선정을 위해 장애인 단체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공공후견법인에 연구 목적과 선정 기준을 공문으로 설명하여 최종적으로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사업단을 통해 본 연구의 참여자를 6명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사업단 소속으로 다양한 연령과 전공을 가진 6명의 공공후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20대에서 40대 사이며, 전공은 심리학, 사회복지학, 중독재활복지학, 정신건강복지학 등이고, 후견활동 경력은 1년에서 7년 사이로 조사되었다.



〈표 4〉 연구 참여자 일반적 사항

구분	성별	연령대	전공 및 전문영역	소속기관유형	후견활동경력
참여자 1	여	30대	사회복지학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사업단	2년
참여자 2	남	20대	심리학, 사회복지학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사업단	3년
참여자 3	여	20대	중독재활복지학, 사회복지학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사업단	2년
참여자 4	남	40대	정신건강복지학 석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사업단	7년
참여자 5	여	40대	사회복지학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사업단	1년
참여자 6	남	30대	사회복지학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사업단	1년

공공후견인들은 평균적으로 30명에서 40명의 피후견인을 담당하고 있으며, 피후견인 대부분은 중증 정신장애인이다. 대다수의 피후견인들은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특정후견 또는 성년후견의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다. 공공후견인의 주요 업무는 일상생활 지원 및 의사소통 지원, 의료적 결정 대행, 금전 관리, 법률적 지원 등을 포함한다. 특히 의료적 결정에 있어서는 피후견인의 동의를 대신하여 치료 여부를 결정하며, 금전 관리에서는 재산 관리와 경제적 지원 신청을 담당한다. 법률적으로는 피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피후견인의 생활환경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2. 교육 진행

연구 참여자 6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2024년 8월과 9월 중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회당 1시간 30분 정도 강사의 교육이 진행되었고, 질의 및 응답 시간이 30분 정도 추가되어 매 회당 2시간 정도로 진행되었다. 연구진이 라 트로브 교육 모형을 이해하고 개발하여 만든 교육 안을 기반으로 연구진 중 1명이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을 진행한 연구자는 최근 지원의사결정과 관련된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실천 현장에서는 진술 조력, 신뢰관계인 동석 등 의사결정 지원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첫 회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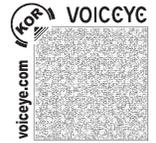
모듈 1과 2를 교육하였고, 두 번째 교육에서는 모듈 3과 4를, 세 번째 교육에서는 모듈 5와 6을 교육하였다. 교육 시 라트로브에서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뿐만 아니라 영상을 활용하였다.

〈표 5〉 교육회기와 내용

교육회기	모듈	내용
1회기	모듈 1	자기결정권, 지원의사결정의 의미 등
	모듈 2	모듈 내 원칙과 전략에 대한 설명(7개의 절차)
2회기	모듈 3	각 절차별 활동, 짧은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방법 고민
	모듈 4	지원의사결정의 원칙
3회기	모듈 5	실천 전략(방법론)
	모듈 6	총정리, 종합적 의사결정 지원방법

### 3.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집단초점면접, 서면 인터뷰, 성찰기록노트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교육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실천이 이루어진 이후인 2024년 11월 중순과 하순에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진행된 교육에 대한 평가, 교육 이후 의사결정 지원 경험, 교육 과정 개선 방안, 성공적인 지원의사결정을 위한 실천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인터뷰는 총 2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모든 연구 참여자가 일정 관계상 2회의 인터뷰에 모두 참여하지는 못하고, 1차 인터뷰에는 5명, 2차 인터뷰에는 2명의 후견인이 참여하였다. 각 인터뷰는 60분에서 90분 동안 진행되었다. 둘째, 1차 혹은 2차 FGI에 참여하지 못한 참여자 4명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보다 심층적인 의견을 수집하였다. 셋째, 성찰기록노트를 활용하였다. 연구진이 미리 작성한 양식을 연구 참여자에게 전달하였고, 교육 이후 연구 참여자들이 피성년후견인을 만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의사소통을 할 경우 성찰노트를 작성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4명의 후견인(참여자 1, 참여자 2, 참여자 3, 참여자 5)이 성찰기록노트를 작성하여 2024년 11월말에 제출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실제 후견 활동에서의 경험과 성찰을 파악하였다.



#### 4. 자료 분석

FGI, 서면인터뷰, 성찰기록노트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에서 많이 활용하는 반복적 비교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 과정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비교적 사용하기 쉽고, 다양한 질적 자료들을 분석할 때 응용이 가능하여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방법으로 넓게 활용되고 있다(유기웅 외, 2021). 이러한 분석 방법을 통해 정신장애인을 지원하는 후견인의 교육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10개의 하위 주제와 4개의 주제로 분석하였다.

### IV.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와의 초점집단인터뷰, 서면 인터뷰, 성찰기록노트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식전환을 이룬 지원의사결정 교육, 효과적인 교육 방법, 실천 적용에의 한계, 성공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조건과 같은 네 가지 주요 주제가 도출되었다. 결국 라 트로브 교육모형을 활용한 지원의사결정 교육은 내용과 방법 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바로 현장에 적용하여 실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고, 교육 이외에도 성공적인 지원의사결정 실천을 위해서는 지원자의 역량 강화, 피후견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 그리고 사회적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분석 결과

하위주제	주제
피후견인을 독립적인 의사결정 주체로 인식 전환	인식전환을 이룬 지원의사결정 교육
지원의 핵심 도구 및 현장 적용 가능성 발견	
소그룹 교육 및 사례 활용한 소통의 유용성	효과적인 교육 방법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체계적인 적용 가능성 확인	
의사소통능력 부족한 피후견인의 욕구 파악 방법의 한계	실천 적용에의 한계
실습 중심 교육과 다양한 사례 학습 부족	
지원자의 역량 강화	성공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조건
피후견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이해	
교육 강화와 한국형 교육 모델 개발	
지원의사결정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지원 확대	

## 1. 인식전환을 이룬 지원의사결정 교육

### 1) 피후견인을 독립적인 의사결정 주체로 인식 전환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을 통해 피후견인을 독립적인 의사결정 주체로 인식하는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기존 태도를 반성적으로 돌아보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피후견인과의 대화 방식 변화,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피후견인의 의지와 선호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로 이어져, 지원의사결정의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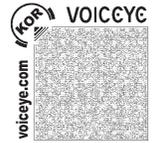
*“(그동안) 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 더 가깝지 않았나, 내 가치와 판단으로 좀 더 설득한 부분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략) 피후견인분의 의사와 선호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봤던 것이 도움이 되었고, 의사소통방식이 소극적인 이유도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이후 잘못된 문장이라도 피후견인 분이 끝까지 문장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고, 문장 속에 숨겨진 의미나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참여자 1)

*“교육 후 피후견인들 만나서 대화 시간을 조금 더 가지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의사결정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계셨고요... 교육 내용 고려하여 대화했을 때 조금 달랐습니다.”*  
(참여자 2)

*“지원 시 피후견인의 의지와 선호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상기하고... 대체의사결정과 지원의사결정의 차이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었음.”*  
(참여자 3)

### 2) 지원의 핵심 도구 및 현장 적용 가능성 발견

후견인들은 의사결정 체크리스트, ACC 그림카드, 도식화된 자료 등 교육에서 제공된 다양한 도구들이 실제 후견 활동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도구들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며, 후견인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교육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고 평상시에 저희가 그냥 생각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부분을 좀 도식화해서 전반적으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참여자 2)

“의사결정 체크리스트를 통해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AAC 그림카드를 정신장애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참여자 6)

“가장 유익했던 것은 module 3과 5였음. 피후견인의 선호와 의지를 보다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받았음.” (참여자 3)

## 2. 효과적인 교육 방법

### 1) 소그룹 교육 및 사례 활용한 소통의 유용성

연구 참여자들은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된 교육이 즉각적인 의견 공유와 실시간 토론을 가능하게 하여 참여도와 이해도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영상을 통한 사례 제시가 실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절한 태도와 언어 선택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였다고 언급했다.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어 질문에 따라 각자의 의견을 즉시 공유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참여자 5)

“현장에서 필요한 주제에 대해 소규모로 진행되는 교육이다 보니, 참여도와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참여자 1)

“많은 인원수가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들이나 궁금 점들을 바로 확인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이번 교육은 양방향으로 약간 저희가 의견을 내기도 하고 해외 사례를 가지고 와서 소통하면서 교육을 받았다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예시가 엄청 많았잖아요.” (참여자 2)

## 2)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체계적인 적용 가능성 확인

연구 참여자들은 의사결정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특히 체크리스트를 통해 의사결정의 범위, 영향, 결과 등을 설명하고 피후견인이 스스로 고려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피후견인의 욕구와 선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의사소통 방식을 개선할 수 있었다.

*“의사결정 체크리스트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피후견인이 원하는 욕구 파악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여자 5)

*“피후견인의 경우 현재 자유로운 생활을 위한 자립생활에 대해 너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 module 3, 5를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의사결정의 범위, 영향, 결과 등 결정의 특징을 설명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대해 구체화하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음.”* (참여자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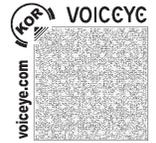
*“피후견인의 입장과 피후견인의 특성에 맞는 결정을 하기 위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점에서 모형에 딱 맞는 소통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참여자 2)

## 3. 실천 적용에의 한계

### 1) 의사소통능력 부족한 피후견인의 욕구 파악 방법의 한계

연구 참여자들은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적인 피후견인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에서 배운 AAC 도구 등을 활용하여야 하나 기존 국내에서 개발되어 보급되어 있는 AAC 도구는 피후견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특히 인지 기능이 저하된 피후견인의 경우, 그들의 욕구와 선호를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있어 기존 국내에서 개발되어 보급되어 있는 방법이나 도구들이 매우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대안적인 접근 방식과 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눈을 마주치거나 간단한 인사 외에 대화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없는 점.”* (참여자 6)



“결정을 내려야하는 상황에 대해 구체화하는 과정이 시작되자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언급되는 순간마다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화제를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정신요양시설 퇴소에 대한 결정이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을 보임., 면담 시간이 길어지자 면담 장소를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임.” (참여자 3)

“AAC를 활용하는 교육 영상이 있었으나 인지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피후견인들의 경우, 그림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용성이 높지 않을 것 같다... 다른 체계 및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음.” (참여자 3)

## 2) 실습 중심 교육과 다양한 사례 학습 부족

연구 참여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과 실습 시간의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의사소통 기술, 갈등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실천적 학습과 성공 사례 공유를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중심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추가되면 유용 하겠습니다.” (참여자 5)

“당사자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 다양한 사례와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실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1)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실제적으로 의사결정 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사례에 대해 학습 및 사례 발표하는 시간이 있다면 보다 교육 및 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음.” (참여자 3)

## 4. 성공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조건

### 1) 지원자의 역량 강화

연구 참여자들은 지원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상담기술 향상 등 지원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모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득, 다양한 사례 경험 공유, 성공 사례 학습, 선배 실천가들의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실천 능력을 키우는 것

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한된 시간 내에 라포를 형성하고 피후견인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담 기술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 투자와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람의 실천능력과 상담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3)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원의사결정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노하우 공유가 필요함... 다양한 사례 실천 경험, 성공 사례, 선배 실천가들의 노하우.”  
(참여자 1)

“면담 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원자의 모듈에 대한 이해와 체득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듯 함. ... 제한된 환경에서만 활동했던 피후견인분의 외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7가지 모듈의 필요한 부분을 적절히 적용해 볼 예정임.”  
(참여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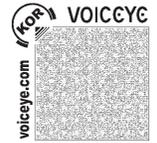
## 2) 피후견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이해

연구 참여자들은 피후견인의 능력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성공적인 지원의사결정 실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개별화 및 유연한 접근을 통해 균형 잡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분들의 능력을 조금 더 존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게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요.”  
(참여자 2)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균형에 맞는 지원과 피후견인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5)

“대상자별로 개별화된 접근과 계획을 통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자 3)



### 3) 교육 강화와 한국형 교육 모델 개발

연구 참여자들은 지원의사결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수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한 홍보, 한국 실정에 맞는 간소화된 모델 개발, 그리고 영상, 책자 등 실용적인 교육 자료 제작 등을 제안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상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한 교육 내용 개발, 그리고 평가 도구 개발 등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많은 시설,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교육이나 세미나 형식으로 시설 담당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홍보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참여자 6)

*“대상자들의 이해 수준을 고려한 단순한 용어, 문장을 활용한 교육 내용, 의사결정 지원 전략을 담은 책자 제작되면 좋을 것.”* (참여자 3)

*“(업무 부담이 많은 한국 현실에서) 실천 현장에서 증점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나 단순화된 과정... 한국형으로 간소화된 모델이 개발되어 제도적으로 도입된다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한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담은 영상이 제작되어 교육 자료로 활용된다면...”* (참여자 3)

### 4) 지원의사결정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지원 확대

연구 참여자들은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 다양한 분야 실무자들의 인식 제고, 정신요양시설 직원의 참여, 지지체계 및 자원연계 확대 등을 통해 지원의사결정 제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신장애인이거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지어진 편견이나 스티그마들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략) 법적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져서 피후견인에 대한 자료를 지원가가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자 4)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에게 지원의사결정 개념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3)

“지지체계 및 자원연계 확대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실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참여자 1)

## V. 결론

본 연구는 의사결정 지원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모형이 없는 상황에서 호주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개발된 라 트로브 교육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직접 교육해 본 후 이 교육모형이 우리 현실에서 효과적인지, 또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6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교육을 하고 초점집단인터뷰, 서면 인터뷰, 성찰기록노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라 트로브 교육모형을 활용한 지원의사결정 교육은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 교육을 통해 후견인들은 피후견인을 독립적 의사결정 주체로 인식하는 전환을 경험했으며, 의사결정 체크리스트, AAC 그림카드, 도식화된 자료 등이 실제 후견 활동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 또 소규모 그룹 교육과 사례 활용이 참여도와 이해도를 높였다고 확인되었으며,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체계적인 지원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부족함도 있었다.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욕구 파악 방법의 한계가 존재했고, 실습 중심 교육과 다양한 사례 학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 이외에도 지원자의 역량 강화, 피후견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 그리고 사회적 지원 확대 등과 같은 조건이 성공적인 지원의사결정 실천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해 다음과 같은 함의가 도출되었다. 첫째, 지원의사결정 교육은 후견인들에게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체크리스트, AAC 그림카드, 도식화된 자료 등 실용적인 도구가 제공되어 실제 후견 활동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교육을 통해 후견인들은 피후견인을 독립적인 의사결정 주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전환을 경험함으로써, 피후견인과의 소통 방식이 개선되어, 피후견인의 의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또한 소규모 그룹 교육과 영상을 통한 사례 제시가 교육의 효과성을 높였다. 이러한 효과들은 후견인들이 피후견인의 권리와 자기결정을 더욱 존중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적인 피후견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하며, 이는 추가적인 교육과 소통 방식 개선의 필

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교육 후 실천 과정에서 새로운 한계점들이 드러났다. 후견인들은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된 피후견인과 상호작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존 국내에서 개발되어 보급되어 있는 AAC 도구나 교육 방법이 이러한 피후견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인지 기능이 저하된 피후견인의 경우, 그들의 욕구와 선호를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 현재의 방법들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상담 시간과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피후견인과의 깊이 있는 이해와 라포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한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된 피후견인을 위한 맞춤형 도구 개발과 후견 지원 체계의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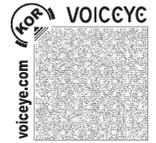
이러한 함의는 지원의사결정 체계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과 의사소통 방식의 다변화, 제도적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적인 피후견인들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와 관련인 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되어 보급되어 있는 AAC 도구나 교육 방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지 기능이 저하된 피후견인의 욕구와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방식을 다변화하고, 행동분석 전문가, 심리학자, 언어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비언어적 행동의 의미에 대한 최선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후견인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뿐만 아니라 가족, 시설 직원, 동료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지원 의사결정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피후견인을 진정한 의사결정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피후견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을 옹호인으로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가족 지원 그룹을 운영하여 이해당사자들이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후견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용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한국형 지원의사결정 모델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할 필요가 있다. 후견인들이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실습 중심의 교육과 실제 사례 분석을 포함시켜야 하며, 소그룹 토론 방식의 교육을 통해 후견인들의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법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후견인 교육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피드백을 통해 교육 내용을 업데이트하며, 후견인들의 실제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교육 내용 구성 시 의사소통 기술 등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의사결정과 관련된 철학, 인간 존중 철학 등 지원자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은 후견 절차 등 관련 법 내용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라 트로브 모형은 지원의사결정의 이해, 필요성, 원칙 등을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 하에서 지원을 할 때 어떻게 고민해야 하는지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도 교육 이후 피후견인을 독립적인 의사결정 주체로 인식하게 되는 등 인식의 변화가 컸고, 이에 따라 실천 시 자세가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시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기술과 더불어 철학적인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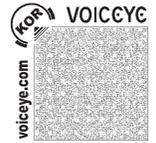
현재 공공후견제도는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치매 영역에서도 수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호주의 라 트로브 교육 모형을 주 장애가 정신장애인인 사람들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에게 교육을 하여 그 효과성을 살펴본 것으로 모든 영역을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 영역 및 치매 영역에서도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향후 개발될 지원의사결정제도 실천 모형에 따라 지원의사결정 지원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미옥, 김고은. (2023). 발달장애인의 지원의사결정에 대한 좋은 실천은 가능한가?: 장애인복지 실천에의 함의. *한국장애인복지학*, 60, 173 ~ 207.
- 김미옥, 김고은, 박지혜. (2021). 영국 정신능력법의 지원의사결정관련 쟁점과 함의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3(2), 249-277.
- 김미옥, 김고은, 정은혜. (2021). 발달장애인의 지원의사결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종사자 인식에 대한 IPA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54, 123-154.
- 김미옥, 박지혜, 정민아. (2020). 장애인복지관에서의 발달장애인 지원의사결정(Supported Decision Making) 경험. *한국장애인복지학*, 50, 169-197.
- 대한민국정부. (2019).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대한민국정부.
- 박인환. (2014). UN장애인권리협약과 성년후견 패러다임의 전환 - 의사결정대행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가족법연구*, 28(3), 171-220.
- 박인환. (2015).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평가와 모색. *비교사법*, 27(2), 725-758.
- 보건복지부. (2025a). 2024년 등록장애인 263만 1천 명, 전체 인구 대비 5.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년 4월 17일 배포)*.
- 보건복지부. (2025b).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년 3월 12일 배포)*.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21).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 이동석. (2017). 캐나다 5개 주의 지원의사결정 제도 비교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36, 179-202.
- 이동석, 김용진, 장영재, 김강원, 김치훈, 유인선. (2023). *지원의사결정 제도 도입방안 연구*. 서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이동석, 김강원, 도여옥, 김치훈, 유인선 (2024). *지원의사결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후견 현장 실천 연구 - 어떻게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하는가?*. 서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제철웅. (2014).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가족법연구*, 28(2), 205-244.
- 제철웅. (2017). 성년후견과 지속적 대리 -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보호에서 인권존중으로. *법조*, 722, 76-122.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3). *Australia's welfare; 2013*. Canberra: AIHW.
- Bigby C., Douglas J., Carney T., & et al. (2017). Delivering decision making support to people with cognitive disability - what has been learned from pilot programs in Australia from 2010-2015. *Australia Journal of Social Issues*, 52, 222-240.

- Craig P., Dieppe P., Macintyre S., & et al. (2007). Developing and evaluating complex interventions: the new medical research council guidance. *BMJ*, *337*, a1655.
- Davidson, G., Kelly, B., Macdonald, G., Rizzo, M., Lombard, L., Abogunrin, O., Clift-Matthews, V., & Martin, A. (2015). Supported decision making: A review of the internation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38*, 61-67.
- Disabled World. (2025). Available from: [https://www.disabled-world.com/disability/statistics\(2025.3.20. 접근\)](https://www.disabled-world.com/disability/statistics(2025.3.20. 접근).
- Douglas, J. & Bigby, C. (2020). Development of an evidence-based practice framework to guide decision making support for people with cognitive impairment due to acquired brain injury or intellectual disability.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42*(3), 434-441.
- Gooding PM. (2013). Supported decision-making: a rights-based disability concept and its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law.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20*, 431-451.
- Gordon R. (2000). The emergence of assisted (supported) decision-making in the Canadian law of adult guardianship and substitute decision-ma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sychiatry*, *23*, 61-77.
- Inclusion EU. (2008). *Key Elements of a System for Supported Decision-Making*. Position Paper.
- Living with Disability Research Center. (2019). *The LaTrobe Supported Decision-Making Practice Framework*. Living with Disability Research Center in La Trobe University.
- Miller, L. M., & Carpenter, C. L. (2009). Altruistic leadership strategies in coaching: A case study of Jim Tressel of the Ohio State University. *Strategies*, *22*(4), 9-12.
- UN CRPD. (2014a). *General Comment No. 1 - Article 12: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UN CRPD. (2014b).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UN CRPD. (2023).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US Census Bureau. (2014).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Washington: US Census Bureau.



<홈페이지>

라 트로브 지원의사결정 교육 모형 홈페이지.

<https://www.supportfordecisionmakingresource.com.au>(2024.3.15. 접근).

Abstract

## The effectiveness and tasks of supported decision-making education using the Australian La Trobe framework

Dongsuk Lee\*, Yeo-ok Do\*\*, Kangwon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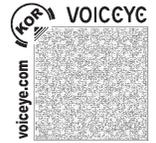
This study introduced the La Trobe framework developed systematically and scientifically in Australia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no educational model for implementing decision making support, and tried to examine whether this framework is effective in our reality and what measures can be improved to fit our situation after directly teaching it. To this end, six research participants were selected and educated, and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written interviews, and reflective notes. The analysis results revealed four themes: supported decision-making education that achieved a change in perception, effective education methods, limitations in practical application, and conditions for successful decision-making support. Ultimately, supported decision-making education using the La Trobe framework was found to be effective in terms of content and method. Through the education, guardians experienced a shift in recognizing wards as independent decision-maker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small group education and case use increased participation and understanding, and the possibility of systematic support using checklists was confirmed. However, there were also shortcomings in applying it directly in the field. There were limitations in the method of identifying the needs of wards who lacked communication skills, and

---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aegu University

\*\* Mental Health Social Worker, Daegu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Center

\*\*\* Vice-President, Public Interest Human Rights Center of DLG Law Firm



it was found that practice-centered education and diverse case studies were insufficient. In addition to education, it was found that conditions such as strengthening the applicant's capacity, positive views on the ward, and expansion of social support are more necessary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upported decision-making. Accordingly, the roles of various experts and related personnel are necessary for decision-making support for wards with limited communication skills,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guardian education program in a practical direction and develop a Korean-style supported decision-making model and education program.

**Keywords : Supported decision making, La Trobe framework, Educational effectiveness, Adult Guardianship, Advocacy**

논문 투고 : 2025.03.25.	논문 심사 : 2025.05.26.	게재 확정 : 2025.06.13.
---------------------	---------------------	---------------------